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주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26(土) 흐리고 가끔 눈 -2/4℃
27(日) 흐리고 눈 -3/3℃
단기 4342년 (음력 11월 1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59호 1판 2009년 12월 26일 토요일

성탄축하 교회 온 스님

성탄절인 2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무진교회서 열린 성탄예배에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과 보리수나무 합창단이 동참해 종교화합과 상생을 기원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남구의원 집 500만원 돈상자 배달사고 수사

구청직원 채용 뇌물인 듯

광주남부경찰, 구의원·구청직원 내주 소환

월 75만원의 급여를 받는 50대 시립도서관 임시 여직원이 구의원에게 500만원이 든 소 사골 선물세트를 보냈다면 어떤 목적이었을까. 광주시 남구 A의원에게 보내려던 돈상자가 잘못 배달된 사건〈본보 25일자 6면〉과 관련, 경찰이 돈의 성격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돈을 건넨 이모(여·52)씨로부터 A의원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의원이 이씨를 구청직원으로 채용키로 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A의원과 이씨의 관계 = 2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남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A의원과 공무원 B(여·35·7급)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구청에서 서류나 문서를 정리하는 사무보조로 일할 당시 사무실에 온 A의원에게 차를 건네면서 얼굴을 알게됐고, 공무원 B씨도 그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A의원은 총무와 희망복지, 복지사업 등을 소관으로 하는 남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경찰은 남구가 지난 17일 공고한 '2010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채용 수정 공고'(이하 채용공고)의 담당부서가 A의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희망복지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이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음해다 "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의원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목적은 인사 청탁용" 잠정 결론 = 사건 직후 일각에서는 이달 말 도서관 계약 종료를 앞둔 이씨가 계약 연장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네려다 배달이 잘못됐다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경찰은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있다. 계약연장을 꾀했다면 시청이나 도서관 측에 돈을 건넸어야 하는데다 월급 75만원짜리 직책에 비해 이씨가 상자에 담은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남구청이 공고한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공고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남구는 1년 기간제로 5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할 계획이며, 연봉은 2천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28일께 남구 측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채용공고 원안 ▲지원자 내역 ▲채용 공고 수정이유 등을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무산될 경우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응시기간이나 자격 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 채용공고 수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A의원·구청직원 조사 불가피 = 경찰은 이씨를 불러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르면 다음주 말께 A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0일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남구청 공무원 B씨도 함께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 남구청이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공무원 B씨가 배달된 돈을 되돌려 줬는지와 구청 고위관계자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등의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방선거 입지자들 "답답하네"

내 선거구 도대체 어디?

#1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시 A씨는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 어디에서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광주는 5개 자치구이지만 교육의원은 4명만 선출하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정수 몇 명?

#2 전남도의원을 꿈꾸는 B씨는 광역의원 의원정수에 주목하고 있다.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어 의원정수 증감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천 룰' 어떻게 돼나

#3 민주당 당적이 있는 광주지역 C씨는 선거법보다 당내 '공천 룰'이 어떻게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 룰'에 따라 공략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아 입지자들은 물론 선관위마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거 룰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지난 22일로 마쳤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가장 큰 관심사는 광역의원의 경우 의원정수이고 기초의원은 선거구제, 교육의원은 선거구역 획정 등이다.

광역의원 의원정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상하인구 편차 60%를 초과하는 선거구의 재조정과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입지자들은 각 시·군·구별 광역의원 지역구 증감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여당은 소선거구제를, 야당은 '야당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현행 중선거구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주·전남 입지자들은 민주당 '공천 룰'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룰'에 따라 공략 대상이 결정되는 탓이다. 공천방식이 대의원에 힘이 실릴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세지고, 여론조사로 할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험해보지 않은 교육의원 선거도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는 4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선거구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구와 남구를 하나의 선거구 할지, 아니면 동부·서부로 나뉜 교육청을 기준으로 각 2명씩 선출할 지 정해지지 않아 입지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마저 선거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 광역의원 입지자는 "선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황사 습격…연초까지 추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춥고 지역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영하권을 맴도는 이번 추위가 연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에는 이례적으로 겨울 황사가 찾아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도심이나 야외 나들이에 나선 지역민들을 괴롭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6일 광주·전남은 지역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이라고 25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25일 오후를 기해 광주·전남에 황사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는 26일 오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기심은 진실에 등 돌리게 한다"

교황 성탄 미사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4일 재임 이후 다섯번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정 미사를 집전했다.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신을 영접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는 "세계의 온갖 분쟁, 화해의 결여는 우리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주장, 우리만의 작고 개인적인 세상에 집착한 탓에 생긴다"며 "개인적·집단적인 이기심은 우리를 이해관계와 욕망의 포로로 만들고, 진실에 등을 돌리게 하며,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려고 복도를 걸어가던 도중 미사객 중 한 명이 뛰어들어 교황을 밀어 넘어뜨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교황청 대변인 치로 베네데티니 신부는 "교황은 곧바로 일어나서 복도를 마저 걸어간 뒤 예정대로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했다"며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U대회 영어스쿨 인기 ▶2면 연말연시 세일 잔치 ▶4면 월드스타 비 ▶7면 영화 거장들 새 작품 준비 분주 ▶10면 짧은 거리 퍼팅 이렇게 ▶15면